

목포시, 전국 최고 수산식품도시 '순항'

수산식품수출단지 2025년 완공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등 인프라 개선·상품 개발 박차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목포시가 전국 제1의 수산식품도시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다.

전남은 전국 어업생산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는데 목포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최대 집산지이다.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 적합한 지리적 이점도 갖고 있어 전국 제1의 수산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시는 인프라 개선과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잠재력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프라 분야는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이 본격화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간판사업이다.

조성사업은 사업비 189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2만8133㎡)에 지상 5층(연면적 4만9106㎡) 규모의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수출단지는 36개 기업유치, 2154명의 고용유발, 1978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돼 목포의 수산식품산업에 진일보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단지에는 임대형 가공공장, 수산물거래소, 연구시설, 냉동·냉장창고 등이 구축돼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물류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전남 마른김의 거래 표준 정립과 유통가격 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마른김 거래소도 구축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연구 용역을 수행해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는 지난해 12월 설립해 현재 운영 중이다.

시는 2024년 착공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다른 인프라는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다.

지원단지는 북항 배후부지에 생산·유통·물류 기능의 수산시설을 집적해 어업활동을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할 수 있도록 조성된 단지로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됐다.

지원단지는 위판장, 가공시설, 냉동·냉장시설, 제빙·저빙시설, 판매장, 보급창고, 유통공급시설 등을 갖춰 종합지원단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재 가공시설, 냉동·냉동시설, 보급창고, 고속 급유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 2062억원, 2021년 1984억원 등 2년 연속 전국 위판고 1위를 차지했다.

시는 산지 유통기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92억원(도비96억원)을 투입해 급랭실, 제빙실, 저빙실, 쇠방앗 등을 구축하는 수산물

유통·물류 센터 건립사업을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목포가 과거 어묵 등 연제품(어육 가공품)의 3대 주요 생산지였던 점에 착안해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을 기획했다.

2020년 8월 '2021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육성에 필요한 종자돈을 마련했다.

시는 2023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대양산단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시설을 갖춘 가공공장을 건립하는 한편 특화어묵 개발, 브랜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가공공장 규모 선정 및 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통해 국내산 미활용 어류 중에서 어묵 소재에 적합한 어류를 탐색해 이를 활용한 연육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1억 5000만원 상당 유리컵 2만 개 기부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

무안군은 최근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서 1억 5000만원 상당의 유리컵 2만 개를 기부해 지역 소외 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무안 도자기 제조와 관련된 생산자들로 구성된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22일 창립을 시작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무안 생활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무안 도자기의 명품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정용무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모두가 힘들고 지친 시기지만 조금이나마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유리컵을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무안군 지역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전체가 침체되고 있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에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정용무(왼쪽) 무안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무안군청을 찾아 1억 5000만원 상당의 유리컵 2만개를 기부했다. <무안군 제공>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자기를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영광군, 제1회 청년 싱크탱크 전체회의 개최

영광군이 최근 제1회 영광군 청년협의회 '청년 싱크탱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청년 싱크탱크는 회의를 통해 협의체를 이끌어 갈 제4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선출하고 지난 제3기 위원에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또한 협의체 활성화 계획과 인구감소에 따른 청년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분과장·부분과장 및 위원장 후보자 등 18명이

현장 참여하고 26명의 위원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제4기 청년 싱크탱크에 박지아 위원장, 양세형 부위원장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박지아 위원장은 "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청년정책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염전 노예” 용어 사용 자제해 달라”

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 호소

신안군 천일염생산자연합회가 '염전 노예'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연합회는 최근 잇달아 보도되고 있는 '염전근로자 인권유린'에 대해 천일염 생산자를 대표해 3일 전남도청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홍철기 회장은 "염전근로자 인권유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통한 보도로 신안군 천일염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나머지 선량한 염주·근로자

가 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건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여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일이며 해당 염전 염주와 근로자 간에 비롯된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에서 근로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악용해 8년 전 사건과 무관한 사건을 엮어 '노예', '탈출' 등의 단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사실관계가 아닌 관성필기용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고 연합회는 아쉬워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전국 최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식품부 공모 선정 24억 확보

황산 옥동초 폐교에 내년 완공

농촌 일자리 부족 해결 기대

특히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해남군이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선제적으로 건의해 추진을 이끌어낸 사업으로, 상향식 공모 추진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명현관 군수 등은 직접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를 건립해 체류기간을 늘리고, 합법화된 시설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 왔다.

국비 12억원을 포함해 총 24억원이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남녀 기숙사를 비롯해 상담실과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 등의 공간으로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는 2023년까지 황산 옥동초등학교 폐교부지인 균유지 3000㎡에 지상 2층, 총 면적 약 964㎡ 규모로 지어진다.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보유한 해남군은 고구마와 배추 등 작목 중심으로 일시 3000여명 규모의 계절성 농촌인력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700여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인력의 대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제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정도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물론 안정적인 거주공간이 확보되면 농촌 일자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만큼 기숙사 건립사업을 추후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